

No.20171213-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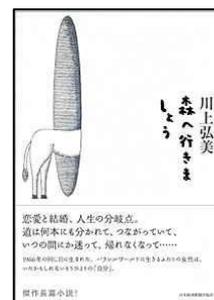
제목: 숲으로 갑시다

저자: 가와카미 히로미

페이지수: 512

장르: 일본문학

출간일: 2017년 10월 11일



<내용소개>

1966년 같은 날 태어난 두 여성, 두 사람의 삶의 선택을 그린다.

이 책 '숲으로 갑시다'는 가와카미 히로미의 연애와 결혼을 그린 소설로 500페이지가 넘는 긴 장편 소설이지만 몰입도가 높아 단숨에 읽을 수 있는 걸작이다. 이 타이틀은 1966년 생의 두 여성이 같은 시간 속의 이차원에 존재하는 평행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장편 소설이다. 이 소설의 배경인 1960년대는 결혼은 인내하며 어떤 일이던 참아야 하며 여성은 남성을 위해 존재하는 것 같은 시대이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기 시작한 시대이기도 했지만 결혼을 하면 일을 계속 하기 힘들고 25살 이후에는 유효기간이 다된 크리스마스 케이크 취급을 받았다. 경제는 발전하였지만 여성에게는 여전히 선택의 여지가 적은 답답한 시대이기도 했다.

같은 해 같은 날에 태어난 두 여자, 루쯔(留津)와 루쯔(ルツ)가 있다. 이름은 루쯔로 같지만 한 명은 한자로 '留津', 다른 한 명은 카타카나로 'ルツ'이다. 이 책에서 두 주인공은 60세가 될 때까지 동일한 시점에서 각각의 이야기가 번갈아 가며 그려지는데, 출발점은 동일한 둘이지만 두 사람은 점점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 루쯔(留津)는 상당한 난산 끝에 태어나는 반면 루쯔(ルツ)는 순산으로 순탄하게 태어난다. 성장해서 실연을 당한 루쯔(留津)가 다른 남자와 결혼을 해 전업주부로 가사와 육아에 매진할 때쯤 루쯔(ルツ)는 이공계 대학에 진학해 연구소에서 일을 하며 많은 남자들과 연애를 하며 독신생활의 외로움과 자유로움을 누린다. 루쯔(留津)가 개성 강한 시어머니와 손이 많이 가는 남편 때문에 고민에 빠져있을 때 루쯔(ルツ)는 가족이 있는 남자에게 훌쩍 반해버린다. 두 주인공이 '만약 내 인생이 지금과 같지 않았다면'이라고 생각을 한 순간 그녀들의 인생은 희미하게 교차한다. 두 사람을 둘러싼 사람들도 같은 이름으로 각각의 규칙과 타이밍으로 그녀들과 만나고 일종의 관계를 맺고 떠나 간다.

누구나 한번은 이 책의 두 주인공처럼 '지금 이 길이 아니라 다른 쪽을 선택했었더라면'이라는 생각에 사로 잡힌 적이 있을 것이다. 인생을 누구와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는 지점에서 우리의 인생은 크게 달라진다. 때로 우리는 결혼 상대, 친구, 동료, 부모, 형제 등의 사람들을 위해 내 인생의 중요한 것을 포기하거나 한다. 사람의 인생은 선이 아니라 분기점이라는 점들이 늘어서 있는 것과 같다. '이쪽을 선택할걸 그랬어'라는 후회를 할 틈도 없이 우린 다음에 만나는 현실과

마주할 수 밖에 없다. 이 책이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사람은 잘 해나간 다라는 것이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숲은 깊고 즐거운 것일지도 모른다.

<저자소개>

가와카미 히로미

1958 년 도쿄 출생으로 대학에서 생물학을 전공하고 5 년간의 교직생활을 거쳐 1994 년 '어느 멋진 하루'로 문단에 데뷔하였다.

뒤늦은 데뷔에도 발표한 작품들이 여러 차례 주요 문학상을 수상하며 화제를 모았다. 1996 년 '뱀을 밟다'로 아쿠타가와상 수상, 2001 년 발표한 '선생님의 가방'으로 다니자키 준이치 상을 수상하며 문학성을 인정받았다.

No.20171213-002

제목: 막차의 신

저자: 아가와 타이쥬

페이지수: 320

장르: 소설, 로맨스

출간일: 2017년 2월 3일



<내용소개>

제9회 에키나카 서점 대상 1위! 판매 부수 10만부 돌파!

전철에서 시작되는 따뜻한 눈물과 희망이 솟아 나오는 걸작 미스터리

수도권 지하철 노선 주변에 있는 쇠퇴한 상가의 이발소 아들 시바야마는 고교시절에 야간 미용 학교에 다녔지만 대학 졸업 후에는 결국 샐러리맨이 되었다. 하지만 미용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부모님의 영향으로 시바야마는 미용사라는 직업의 역할과 지역 내 이발소라는 독특한 공간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미용사의 자격증을 취득한다. 그렇게 그저 그런 일상을 살아가던 중 아버지가 갑작스레 구강암을 선고 받고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수술을 앞두고 임시 퇴원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시고 간 마을의 초밥집에서 주문한 음식 재료는 모두 품질이 되어 없는데다 손님을 대하는 서비스도 최악이었다. 세 가족의 마지막 외식이 될지도 모르는 이 식사가 형편없어 시바야마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뿐이다. 이후 다시 입원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가 되어 전철 막차를 타고 병원으로 이동하려 하는데, 전철이 사고로 정차하게 되고 시바야마는 발이 묶이게 된다. 한참을 정차하던 전철이 다시 운행되고 겨우겨우 아버지가 있는 병실에 도착하게 된 시바야마는 가슴 속 무언가가 뜨겁게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부모님에게 '시바야마 이발소'를 잇겠다고 선언한다. 시바야마는 인명사고로 정차된 전철 안에서 무슨 생각을 했던 것일까?

여기에는 타츠코가 있다. 그의 본명은 류조로 원래 가마쿠라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지만 어린 시절 부모님이 불화로 이혼하게 된다. 그 후 타츠코의 아버지는 에노시마에 뛰어들어 자살하고, 타츠코는 그 이후부터 고아원에서 자라게 된다. 성인이 된 타츠코는 개그맨이 되어 출세를 하지만 함께 콤비로 활동하는 파트너가 각성제로 복역을 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 타츠코는 좌절하지만 다시 심기일전, 방송 작가로 전향하지만 출소한 파트너가 전철역에서 그 역을 통과하는 급행 열차에 뛰어들어 자살을 하는 사건이 발생하며 타츠코는 다시 한 번 좌절하게 된다. 타츠코는 과연 이 좌절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 책 '막차의 신'은 전철의 인명사고로 인해 정차하게 된 막차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각각의 7개의 미니 에피소드를 엮은 단편집이다. 7개의 단편은 각각의 내용이 다르지만 따뜻함이 있는

휴먼스토리이다. 이 단편집에는 만원전철에서 치한을 당한 남장 여자, 납기일에 쫓기는 IT 엔지니어, 근육 바보의 경륜선수와의 엇갈린 사랑으로 고민하는 커리어 우먼, 미용사로 인생을 완수한 아버지의 최후를 간호하는 효자, 콩트 작가의 여장남자의 과거를 접하고 충격을 받은 젊은 연인들, 자신에 대한 오해를 때문에 등교거부를 하는 소년을 걱정하게 된 인간을 싫어하는 여고생, 역에서 목숨을 살려 준 은인을 찾아내기 위해 25년간 역 편의점에서 일하는 중년 여성이 등장한다. 서민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작은 삶의 찾아온 기적의 순간을 선명하게 그린 '전철'을 테마로 한 따뜻한 작품이다.

<목차>

- 제1장 : 화장품 파우치
- 제2장 : 브레이크 포인트
- 제3장 : 스포츠 바보
- 제4장 : 닫히지 않는 가위
- 제5장 : 고가도로 아래의 타츠코
- 제6장 : 빨간 물감
- 제7장 : 홈 도어

<저자소개>

아가와 타이쥬

1954년 도쿄 출생, 도쿄대학 재학 중에 노다 히데키 등과 극단 '꿈의 유면사'를 설립하였다.

기업의 엔지니어를 거쳐 실리콘벨리 벤처 설립에 참여한 경력이 있으며, 1999년 '천사의 표류'로 16회 산토리 미스터리대상 우수상을 수상한다.

2005년 '패권의 표적'에서 제2회 다이아몬드 경제소설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였다.

No.20171213-0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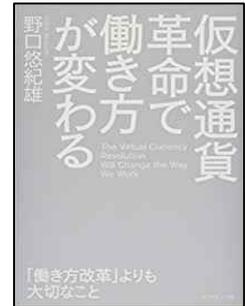
제목: 가상통화 혁명: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저자: 노구치 유키오

페이지수: 264

장르: 경제경영

출간일: 2017년 10월 19일



<내용소개>

일하는 방식의 혁명보다 중요한 것, 더 이상 회사가 전부인 시대가 아니다!

프리랜서 활용으로 개인도 회사도 더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이웃나라 일본도, 그리고 미국도 정책 수립의 큰 테마로서 '일하는 방식'을 다루고 있다. 국가 경제가 금융완화정책이나 재정확대에 의지하지 않고 건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전략의 수립이 필수적이며 그 중에서도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하지만 현재 일본 그리고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일하는 방식의 혁명'은 그 접근 방식에 결점이 있다고 저자는 지적한다. 일하는 방식이 왜 변화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이고도 본질적인 고민이 수반되지 않은 채로 전통적인 제조업 중심의 사고방식에서의 일하는 방식을 전제로 미래의 청사진을 설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제조 역량이 국가 성장을 이끌던 시대를 지나 부가가치를 수반한 서비스 중심의 산업이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독창성을 끌어내기 위한 노동환경'이지만 이러한 환경의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는 현실을 꼬집는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일하는 방식'이 국가의 경제 정책 수립에 있어 주요 아젠다로 등장하게 된 배후, 클라우드 소싱이나 공유경제와 같은 새로운 기술과 패러다임이 어떻게 프리랜서라는 새로운 '일하는 방식'을 가속화시키는지, 일하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주요한 기술들이 어디까지 왔으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특히 최근 경제경영 분야에서 가장 핫한 키워드이자 기술인 '가상화폐'가 일하는 방식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으며 프리랜서들을 서포트하고 있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고도의 암호화 알고리즘인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아직까지는 투자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이는 송금을 위한 제반 서비스와 즉시적 현금화에는 아직까지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이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미 일본 내 주요 전자제품 유통업체인 빅카메라 등 주요 채널들이 비트코인 결제를 도입하고 있다. 일본 대형은행 중 하나인 미츠비시UFJ은행은 독자적인 가상화폐 MUFG코인을 2018년 연내 출시를 발표하였다. 가상화폐의 현실화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가상화폐의 상용화는 곧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불러올 것이며, 금융권에서는 증권거래에 가상화폐를 사용하며 현금거래에 따른 수수료 수취업에 변화를 불러오게 될 것이 분명하다. 또한, 공유경

제 생태계와 클라우드 소싱의 영역에서도 노동 거래에 가상화폐가 개입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전략/법무/세무 등 전문 서비스, 통번역 등 공간적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으면서도 국경을 넘어선 서비스가 가능한 영역을 중심으로 한 프리랜서 시장의 성장을 견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저자의 전망이다.

일견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화폐의 현재와 미래를 조망하는 내용으로 비춰지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경제 생태계의 변혁에 따른 개개인의 커리어를 어떻게 설계해 나갈지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한 차원 더 높은 가상화폐 시대의 변화를 전체적으로 전망하는 타이틀이다.

<목차>

- 제 1장: 지금 왜 '일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가?
- 제 2장: 새로운 기술이 가능하게 하는 프리랜서라는 일하는 방식
- 제 3장: 가상 통화는 프리랜서를 지원한다
- 제 4장: 새로운 기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 제 5장: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은 미국 노동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 제 6장: 정부의 '일하는 방식 개혁'은 노동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저자소개>

노구치 유키오

1940 년 동경 출생, 1963 년 동경대 공학부를 졸업하였으며 1972 년 예일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히토츠바시대학 교수, 동경대 교수, 스탠포드대학 객원교수, 와세다대학 대학원 파이낸스 연구과교수를 거쳐 2017 년 와세다대학 비즈니스 파이낸스 연구센터의 고문과 히토츠바시대학 명예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기존 저서로 '정보의 경제이론', '재정위기의 구조', '버블의 경제학', '초 정리법', '1940 년 체계', '브렉시트, 일본은 엔화 상승에 대처할 수 있을까?', '가상화폐 혁명', '블록체인 혁명' 등이 있다.

No.20171213-004

제목: 살찌고 싶지 않다면 몸 속의 독을 빼내라! - 오비소겐의 비밀

저자: 카쿠 레이카

페이지수: 248

장르: 건강법, 다이어트

출간일: 2017년 11월 17일



<내용소개>

살찌는 원인이 꼭 과식이나 운동 부족이 아닐 수도 있다.

비만대국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다이어트의 상식!

우리는 늘 마르고 건강한 몸매를 원한다. 그리고 자꾸 살이 찌는 이유는 많이 먹어서, 혹은 운동량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저자는 우리가 자꾸 살이 찌는 이유가 꼭 과식이나 운동 부족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한다. 최근 의료계의 여러 연구 결과를 보면 오비소겐(Obesogen, 지방 세포의 생산과 저장용량을 늘려 비만을 일으키는 화학물질 또는 비만을 발생시키는 환경 호르몬)이라는 물질이 우리 체내에 독과 같이 쌓여 우리를 살찌게 한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 이 오비소겐은 호르몬이나 신진대사 등의 몸의 기능을 저해하면서 유전자 수준에까지 개입하여 우리의 몸을 '비만 체질'로 바꾸어버리는 무서운 물질이다. 하지만 오비소겐은 아주 특별한 것이 아니고 평소 우리의 일상 생활에서 먹고 마시고 사용하는 대부분의 일상용품에도 포함 되어 있는 물질이다. 한 번 사용하고 버리는 종이컵이나 휴지 같은 일회용품, 약용 비누, 불소 가공 프라이팬, 도시락, 과자, 스마트폰 등 대부분의 일상 용품에 이 무시무시한 오비소겐이 숨어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식사량과 식단을 조절하거나 운동을 하기 전에 먼저 이 오비소겐을 몸 안에 쌓지 않고 쌓여있는 오비소겐을 배출할 것을 권하며 이것이야말로 비만을 방지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한다.

이 책에서는 오비소겐을 포함한 식품이나 일상 용품의 예를 들며 오비소겐이라는 독, 유해물질에 지지 않고 건강하게 마를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이를테면, 우리는 일상 생활에서 알루미늄, 납, 카드뮴 등 유해금속을 알게 모르게 사용하고 섭취하고 있는데 이를 회피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한다. 아말감으로 된 치아 충전재를 세라믹이나 지르코니아 충전재로 교체하고, 생선 중에서도 참치, 황새치, 상어, 고래, 아귀 등 수은 성분 함유 위험이 있는 물고기는 가급적 섭취를 피한다. 또 조리 시 알루미늄 호일 사용은 물론 알루미늄으로 된 조리기구나 통조림은 최대한 피하고 조리도구도 가능한 스테인리스 혹은 법랑을 사용하여 알루미늄으로부터 유입될 수 있는 오비소겐을 방지한다.

이 책은 단순 개념서에 그치지 않고 오비소겐으로 명명되는 체내 독소가 어떤 작용을 일으키며, 어떤 일상 용품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 더 이상 오비소겐을 쌓지 않고 체내에 이미 축적된 오비소겐을 어떻게 효율적, 효과적으로 배출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 해독을 위한 디톡스 뉘밥 등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레시피도 포함하고 있어 더욱 실용적이다. 건강한 다이어트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다.

<목차>

- 제 1장: 먹으면 어느새 살이 찌는 '오비소겐' 식품
- 제 2장: 친숙한 일상품에도 독이 숨어 있다
- 제 3장: 장을 깨끗이 청소하면 몸 속의 독은 빠져나간다
- 제 4장: 오늘부터 시작하는 '해독력을 높이는' 삶의 방식

<저자소개>

카쿠 레이카

도쿄 출생, 웰니스클리닉 카구라자카의 원장이자 내과의사이다.

1997 년 영국 런던대학교 의과대학 대학원을 졸업, 왕립 내과 학회 인정을 취득하였으며 미국 안티에이징 의학학회 인정의(미국 A4M), 유럽 안티에이징 의학학회 전문의 (프랑스), 미국 첨단의료 학회 해독치료 인정의(미국 ACAM)이다.

비만과 질병의 근본적 원인을 추구하고 손상 부분을 복구하는 '기능 치료', '천연 호르몬 요법'을 구사하며 만성 난치병을 개선하는 웰니스클리닉을 주재하고 있다.

No.20171213-005

제목: 업무를 고속화하는 시간표 작성법

저자: 히라노 토모아키

페이지수: 256

장르: 비즈니스 실용

출간일: 2017년 10월 28일



<내용소개>

아이들은 시간표대로 시간을 잘 지키는데, 왜 어른들은 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것일까?

우리에게 86,400엔이 주어진다면? 그리고 이 돈을 오늘 내에 다 써버려야 한다면?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사람들은 고급 호텔에 묵거나 마사지를 받거나, 금이나 주식 등 환금성이 높은 물건을 구입한다거나 소중한 가족, 친구와 식사를 한다거나 다양한 사용 방법을 말한다. 우리의 하루를 쪼개보면 24시간, 1,440분, 86,400초이다. 우리는 1초를 1엔과도 같이 소중히 생각하고 잘 사용하려고 노력하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은 아깝다고 생각해 어떻게든 효율적으로 사용하려 하지만 시간의 경우 '내일도 있으니까'라는 이유로 소홀히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오늘이라는 시간이 내일에 가산되는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시간관리는 왜 중요한 것일까? 저자는 본문에서 효과적인 시간관리를 익히고 실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한다. 꼭 업무와 일에 한정짓지 않더라도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관리할 수 있다면 노동 시간을 줄이고 취미에 남은 시간을 할애하거나 가족과의 단란한 시간을 갖거나 자기계발에 적극적으로 힘을 쏟을 수 있다. 사실 시간관리는 학교에서는 잘 다루어지지 않지만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역량이다. 하지만 중요성은 잘 인식하고 있지만 바쁜 일상에 치여 그 대책을 미뤄 온 사람들이 부지기수일 것이다. 이 책은 수첩의 기술, 스티커 활용법, 정리술 등 시간관리를 위해 시중에 이미 소개된 여러 방법들을 시도해 본 결과, 저자가 발견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시간관리 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시간은 유한한 개념이며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따라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 책에서는 일의 속도를 높이는 시간관리의 포인트로 한 번에 한 가지에 집중할 것, 정보를 일원화하여 관리할 것, 반복업무의 효율성을 규명할 것, 개별 작업의 스피드를 높일 것의 4가지를 강조한다. 시간관리를 통한 업무효율성 강화를 위해 분실의 우려가 있으며 정보의 보안성이 유지되지 않는 포스트잇 대신 구글 캘린더와 같은 정보 플랫폼을 사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며, 정리된 정보를 즉시적으로 찾기 어려운 두꺼운 노트 대신 A4 백지 사용을 추천한다. 굉장히 상세한 수준에서의 지침을 제시하고 있어 '일도 잘하며 시간관리도 철저한 믿음직한 직장인'을 목표로 하는 사회 초년생들에게 유용하다.

<목차소개>

프롤로그: 시간과 돈,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제 1장: 스티커(포스트잇)를 쓰지 마라

제 2장: 노트를 쓰지 마라

제 3장: 우선순위를 정하지 마라

제 4장: 수첩을 쓰지 마라

제 5장: 이메일에 시간을 쓰지 마라

에필로그: 0.1%의 성장

<저자소개>

히라노 토모아키

츠클바 대학 졸업 후 광고 대행사 근무를 거쳐 독립, 주식회사 아이 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이자 사단법인 일본 비즈니스이메일 협회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있다. 미디어 기고 수 1,000 회 이상이며 25 권의 저서를 보유한 비즈니스 메일 교육의 일인자이다. 이메일의 매너, 영업력 향상, 효율화 등을 주제로 공공기관과 기업에 연간 120 회 이상의 컨설팅, 강연 등을 하고 있다. 비즈니스 실천학원을 주재하고 소규모사업자에게 마케팅과 브랜딩 노하우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메일 매거진 '매일 0.1%의 성장'을 발행하고 있다.

No.20171213-006

제목: 왜 여자만 집안일과 육아를 고민하게 됐을까?

저자: 사코 노리코

페이지수: 242

장르: 사회, 문화

출간일: 2017년 11월 16일



<내용소개>

왜 여자만 일과 육아의 병행을 고민해야 하는가?

'제대로 집안일을 한다'거나 '완벽한 가사'라고 한다면 '조신한 생활', '손수 만든 음식으로 차려진 식탁', '구석구석 심플하고 잘 정리된 집안'과 같은 것들을 상상하게 된다. 이 책은 대다수의 일본 여성들이 조신하게 생활하며 집안일을 제대로 해 내는 것, 사려 넘치는 육아활동에 전념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고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상이 일본 여성들 스스로를 옥죄고 있다고 말하며 이러한 강박에서 탈출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반면 한편에서는 '미니멀리즘' 혹은 '단사리(필요 없는 것의 수를 줄이고, 생활이나 인생에 조화를 맞추고자 하는 삶의 방식)'가 유행하며 엄마가 된 여성들에게 보이지 않는 압박을 주거나 가족과의 분업을 막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타이틀에서 저자는 어쩌면 당연시되고 있는 '집안일=여성의 역할'이 외국인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왜 일본에서는 남성들의 집안일 참여가 부족한 것인지, 국가나 학교에서 '좋은 엄마, 그리고 좋은 가정'을 알게 모르게 강요 받도록 유도되어 온 역사적 흐름은 어떠한지에 대해 여러 국가별 통계 지표와 저자 본인의 주위 사례를 들어 소개하며 고통 받지 않으며 집안일을 대하는 법에 대해 소개한다.

OECD 국가의 1주일 간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약 343분으로, 그 중 남성의 분담률은 31% 수준이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남성의 분담률은 15%에 그친다.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부부의 가사시간 합계 중 남성이 관여하는 가사시간의 비율은 약 8%, 일상생활에서의 가사 분담률은 11% 수준으로 OECD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다. 반면 남성의 유급노동(1일 24시간 당 일하는 비중)은 33%로 OECD 평균을 상회한다. 남성들의 가사 참여율은 낮으며 '일을 통한 경제 활동은 남자의 역할, 집안일과 육아는 여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혀 온 것이 그 근처에 있는 이유라고 통계 자료와 주위 사례들을 들어 저자는 말한다.

이 타이틀의 원제처럼 집안일을 많이 하는 국민적 성향이 뿌리 깊게 남아있다고 해서 일본이라는 국가가 망할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본적으로 이 책이 여성들이 더욱 사회적 권리를 찾고 여성의 권위를 신장시킬 필요가 있으며 그러기 위해서 동등한 인격체로서 여성 스스로가 '집안

일은 나의 몫, '조신한 아내, 육아에 사려 깊은 어머니'라는 전통적인 여성상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라는 메시지를 얻을 수 있는 책이다. 일본의 사례를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 사회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이다.

<목차>

머리말: '왜 일본에서는 가사가 그렇게나 중요한 것일까?'

제1부: 완벽 가사 망국론

- (1) 일본의 주부는 집안일을 지나치게 많이 한다?
- (2) 일본의 가사에 있어 '당연함'은 세계에서는 비상식
- (3) 경제성장이라는 축제의 뒷편에
- (4) 경력개발을 막고 저출산을 가속화하는 완벽한 가사
- (5) 집안일을 잘 해낼 수 없는 가족은 멸망한다

제2부: '지나친 정리하기'가 가족을 망친다

- (1) 일본의 집이 정리되지 않는 데는 이유가있다
- (2) 미니멀리스트는 괴짜?
- (3) 버릴 수없는 이유는 정직함에 있다 - '아깝다'를 다시 생각하라
- (4) 단사리가 도착하는 곳
- (5) 목표는 '할머니의 집'의 안락함

<저자소개>

사코 노리코

1961년 도쿄 출생으로 1984년 국제 기독교대학을 졸업, 2016 조치대학 대학원 글로벌스터디 연구과 박사 전기 과정을 수료하였다.

섬유 제조 업체 및 증권 회사에서 번역 및 조사 업무를 경험하고 프리랜서 번역가로 전향한다. 어떤 책을 번역한 것을 계기로 베이킹 소다와 식초 등의 자연 소재를 사용한 집안일에 눈을 뜨고 관련 연구를 시작하게 된다. 2002년 '주방 재료로 청소하는 내추얼 클리닝'을 출판, 이후 청소 관련 강좌 및 저작권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기존 저서로 '마음의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상식을 깨는 '집안일 절반술', '그만두면 집안이 깨끗! - 물건과 노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안락한 생활의 70 가지 팁', '얼룩 없애기 대사전 - 내추얼 클리닝', '남자의 청소' 등이 있다.

No.20171213-007

제목: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 가해자 가족의 진실

저자: 아베 쿄코

페이지수: 189

장르: 형법, 법률

출간일: 2017년 11월 30일



<내용소개>

가혹한 시선을 감내해야 하는 것은 살인범보다, 그들의 가족이다!

이른 새벽에 울리는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깬 고토 요시코 씨. 일반적으로 이 시간에 전화가 온다는 것은 무언가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때이다. 90세가 넘는 노모의 건강에 이상이 생긴 것은 아닌지, 두 아이에게 뭔가 사고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불안해하며 전화를 받자 수화기 너머로 소리가 온다. '경찰서입니다만, 당신의 아들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여 연락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부모는 어떻게든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에 가게 되고, 경찰은 사건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짧은 면회를 허락한다. 두꺼운 아크릴 판 너머로 아들을 마주한 순간 두 사람은 무심코 일어난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울더니 '미안해, 정말 미안해'라고 말한다. 그 순간 부모는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진다. '엄마, 아빠, 난 살인 따윈 하지 않았어!'라며 울부짖는 아들을 마음 속 한 칸에서 바라보고 있던 것이다. 살인 상대는 부모에게도 소개한 적이 있던 여자친구, 여자친구가 아들 외에도 다른 여러 남자와 교제하고 있었고 그 사실을 안 아들이 우발적으로 여자를 살해했다는 것이다. 다행히 아들이 체포된 날은 세상을 시끄럽게 하던 다른 사건들이 많았던 탓에 다행히 사건이 대대로 보도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사건 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일상을 살고 있던 어느 날, 딸이 울면서 전화를 걸어온다.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던 남자로부터 '살인자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다는 것, 심지어 그 남자의 부모가 찾아와 이별 이후 그녀가 자신들의 아들을 찾아 복수의 칼날을 겨누지 않도록 잘 감시해 달라는 잔혹한 말을 던진다. 살인자의 가족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아들이 사람을 죽였습니다'라는 굉장히 자극적인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매일같이 접하는 많은 살인과 범죄, 당연하게도 이 범죄자들에게도 가족이 존재한다. 본인은 체포됨으로써 사회적 처벌을 받으면 그만이지만 범죄자들의 가족은 그렇지 않다. 인터넷을 통해 이름과 주소와 같은 신상이 공개되거나 거주하는 아파트나 회사에서 쫓겨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인생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180도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갑자기 지옥에 들어서게 된 가족들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범죄 가해자의 가족들을 지원하는, 일상적으로는 다소 생소한 사회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저자는 다양한 범죄 가해자의 가족들을 만나 소통하고 상담

하며 그들이 겪은 상처와 고통들을 이 책으로 엮어냈다. 사람들이 무심코 범죄자의 가족들을 판단하고 언어적/물리적으로 상처 입히는 것, 그것이야말로 범죄라고 저자는 말한다. 우리가 미처 되돌아보지 못하였던 새로운 시각으로 범죄를 바라볼 수 있는 좋은 소재이다.

<목차>

- 제 1장: 가족이 어느 날, 갑자기 범죄자가 된다
- 제 2장: 가해자 가족은 이렇게나 고통스럽다
- 제 3장: 가장 먼저 의심받는 것은 가족이다
- 제 4장: 언론에 보도되게 되면 가족은 지옥을 경험한다
- 제 5장: 사건에 숨어있는 가족병리
- 제 6장: 가족의 죄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 제 7장: 가족에 대한 제재는 범죄억제가 될까
- 제 8장: 가해자 가족의 지원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 제 9장: 가해자 가족을 도와준다는 것
- 제 10장: 범죄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가족이 할 수 있는 것

<저자소개>

아베 쿄코

토호쿠 대학 대학원 법학 석사로, 연구과 박사 과정 전기를 수료하였다.

2008 년 대학원에 근무하는 동안 사회적 차별과 자살 간 상관관계의 조사 및 연구를 목적으로 한 NPO World Open Heart 를 설립하였다. 미야기 현 센다이 시를 거점으로 전국에서 처음으로 범죄 가해자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각종 상담 업무와 동행 등의 직접적인 지원과 계발 활동을 시작, 전국의 가해자 가족의 상담에 응하고 있다.

No.20171213-008

제목: 안도 다다오의 기적: 50개의 건축 X 50개의 증언

저자: 닛케이 아키텍처

페이지수: 352

장르: 건축

출간일: 2017년 11월 1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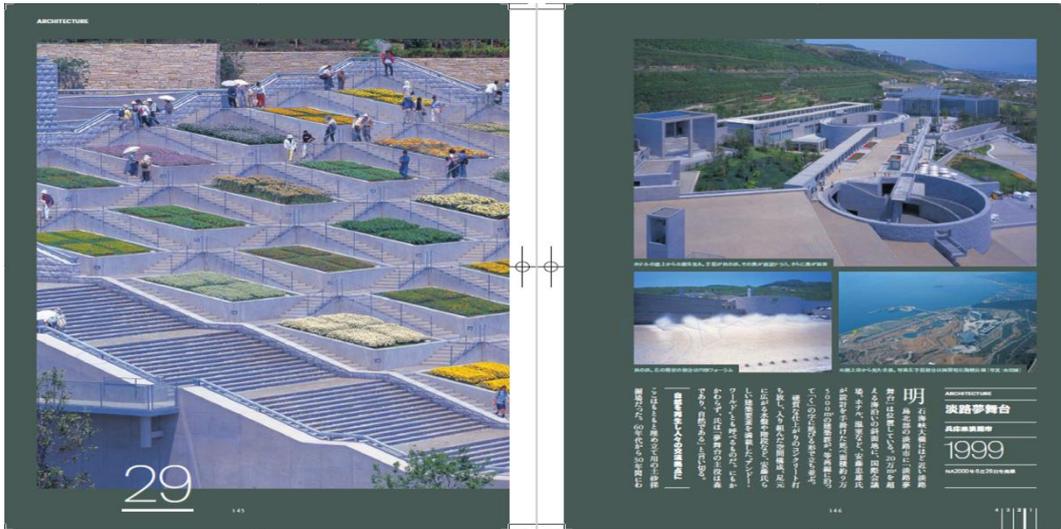
<내용소개>

누구도 완전히 표현하지 못해 온 진정한 안도 다다오, 50명의 증언으로 철저히 검증!

건축 잡지 닛케이 아키텍처의 'NA 건축가 시리즈' 9 번째 작품으로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건축 분야에서는 이례적일 정도의 팬층을 지닌 안도 다다오를 다룬 책이다. 안도 다다오의 건축은 그가 사회 문제를 인식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반영하여 건축물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 책에서는 그가 맞서 싸워 온 사회의 '상대'가 누구인지에 대한 본질을 잘 설명하고 있다. 그가 독학으로 건축을 체득하고 도시형 협소주택을 주 분야로 외벽 콘크리트 마감의 유행을 이끌어내며 건축설계사로서 두각을 나타낸 시점부터 대규모, 글로벌 프로젝트를 주로 수행하던 시기, 미래 건축에 대한 안도 다다오 본인의 시각까지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기존의 안도 다다오 관련 출판물 대부분은 작품집 혹은 인터뷰 모음집으로 그가 사회를 바라보는 문제 의식과 이를 건축물에 투영하는 방식을 깊이 있게 다룬 책은 없었다. 이 책은 본인에 의한 장편 인터뷰와 40 년 간 그가 완성한 50 개의 주요 프로젝트, 안도 다다오와 업무적·개인적으로 매우 관계가 깊은 주변 인물 50 인에 의한 증언이라는 세 가지 테마의 구성으로 건축가 안도 다다오와 그의 작품을 입체적으로, 보다 깊게 들여다 볼 수 있는 책이다.

<본문 이미지>





<목차>

- 제1장 : 1960~70년대, 안도 다다오의 원점을 탐구
- 제2장 : 1980~90년대, 환경 문제와 공공성을 추구
- 제3장 : 2000년대, 세계를 무대로 보존에도 독자의 기술을
- 제4장 : 미래를 잇는, 인간력과 인공지능의 틈새에

<저자소개>

닛케이 아키텍처

일급 건축사를 비롯한 건설회사 및 관련 행정 등 건축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건축 종합 정보지이다. 설계, 시행, 운영 등 건축 실무에서부터 법제도, 업계 동향 등 정보를 충실히 담고 있다. 기존 편집 단행본으로 'NA건축가 시리즈', '닛케이 아키텍처 셀렉션 - 세계의 리노베이션', '닛케이 아키텍처 셀렉션 - 세계의 목조 디자인' 등이 있다.

No.20171213-009

제목: 요정의 스프

저자: 타카모리 미유키(글), 이다 치아키(그림)

페이지수: 165

장르: 아동그림책

출간일: 2017년 10월 20일



<내용소개>

요정의 스프를 만들면서 단점을 극복해가는 소녀의 따뜻한 성장 이야기

이 책의 주인공인 하루카는 초등학교 5학년 학생입니다. 하루카는 반이 바뀐 이후 새로운 친구를 사귄 수 있다고 생각해 기대하고 있었지만 친구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반이 바뀐 첫날 새로운 그룹에 끼지 못하면 1년이 지나도 혼자 외롭게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수업도 재미가 없고 쉬는 시간도 마찬가지로였습니다. 집에서는 여동생인 아이카가 엄마를 독점하고 있어 하루카는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외로웠습니다.

그런 하루카의 눈에 띈 것은 특이한 경험을 한 사람들 이야기를 모아둔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요정은 어른이지만 키가 작고 매우 화려하며, 심술궂게 보이지만 마음씨는 좋고 무언가 하나를 매우 잘한다고 써 있었습니다. 하루카는 그런 요정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숲에서 키가 작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색이 선명한 옷을 입은 할머니의 모습에 하루카는 그 할머니가 요정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으로 달려간 하루카는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지만 엄마는 웃이나 접으라며 하루카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루카는 과감히 요정 할머니의 집을 찾아갑니다. 요정 할머니는 하루카에게 스프를 대접하지만 그 스프는 너무 맛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예전처럼 음식을 맛있게 만들 수 없게 되었다고 말하자 하루카는 그 이유가 요정의 힘이 떨어져서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신을 요정이라고 믿는 하루카에게 자신을 요정이라고 불러도 좋다고 이야기 한다. 집에 돌아간 하루카는 엄마에게 스프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하고 슈퍼에서 장을 보고 스프를 만드는데 동생 아이카의 방해로 결국 하루카는 엄마에게 혼이 나고 앞치마를 벗어 던지고 부엌에서 뛰쳐 나오고 맙니다. 과연 하루카는 집과 학교에서 마주한 문제들을 잘 해결해나갈 수 있을까요?

이 책 '요정의 스프'는 주인공 하루카와 요정 할머니의 교류로 인해 하루카가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입니다. 이 책은 새 학년이 되었을 때 아이들이 느끼는 긴장감과 기대감을 무척 세밀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인공의 고립감과 동생에 대한 질투심 그리고 엄마에 대한 가슴에 맺힌 응어리 같은 심리 묘사도 뛰어납니다. 겉모습만으로 요정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순수함에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책입니다. 하지만 반 친구들의 하루카를 대하는 싸늘한

태도는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왕따 문제가 떠올라 조금 씁쓸하기도 합니다. 새 학기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새 학기가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고독했던 주인공이 요리를 통해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찾아가는 이야기인 이 '요정의 스프'를 추천합니다.

<목차>

제 1 장: 할머니는 요정입니까?

제 2 장: 요정의 집

제 3 장: 슈퍼에서 장보기

제 4 장: 키친 전쟁

제 5 장: 누군가를 위해서

제 6 장: 숲의 레스토랑

제 7 장: 상처

제 8 장: 렛츠 쿠킹

제 9 장: 요정의 정체

제 10 장: 손안의 빛

<저자소개>

타카모리 미유키(글)

1980년 아오모리현 출생으로 현지에서 근무하면서 창작활동에 전념한다.

2012년 '또다시 핀다'로 15회 추우덴아동문학상대상을 수상하였다.

이다 치아키(그림)

일러스트레이터이자 작가로 활동 중이다.

방과 잡화, 소녀를 모티브로 한 작품을 제작하며, 도내를 중심으로 작품 전시회 및 이벤트 등으로도 활약하고 있다.

No.20171213-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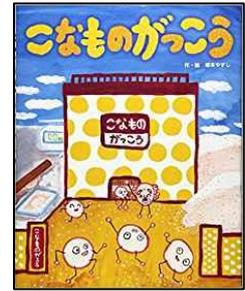
제목: 밀가루 학교

저자: 츠카모토 야스시

페이지수: 32

장르: 아동그림책

출간일: 2017년 10월 1일



<내용소개>

‘밀가루학교’에서 훌륭한 밀가루가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밀가루 학교가 있습니다. 모두 이 밀가루 학교에서 훌륭한 밀가루 음식이 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오늘은 선생님이 미래에 어떤 음식이 되고 싶은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밀가루들 모두 손을 들고 서로 발표를 하려 합니다. 우동, 타코야끼, 도넛, 만두 등 밀가루들이 되고 싶은 것은 다양각색입니다. 밀가루들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공부합니다. 드디어 졸업식 날 무사히 졸업을 한 밀가루들은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가게로 향합니다.

이 책은 밀가루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소개하는 그림책입니다. 밀가루가 학교에 간다는 재미있는 설정으로 밀가루가 어떤 음식에 쓰이는지 자연스럽게 알려줍니다. 코믹하게 그린 밀가루들의 학교생활은 아이들이 좋아하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밀가루 학교’를 읽고 난 후 우리가 좋아하는 음식들 중에 어떤 것이 밀가루로 만들어 졌는지 이야기하며 밀가루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본문 이미지>

